

김영아 교수의 놀이로 脈 잡는 논술

02. 논술과 다른 글의 차이

1. 논술과 다른 종류의 글

① 한 편의 글은 어떤 하나의 서술 방식으로만 씌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을 뒤섞어 사용한다.

② 글의 서술 방식과 글의 종류는 다르다.

*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다.

*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로 결정된다.

* 글의 종류는 어떤 서술 구조를 택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논술의 서술 방식과 성격은 무엇인가?

*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말이다.

* 논술한다는 것은 설명하고 논증한다는 것을 뜻한다.

* 논술은 글의 종류로는 논증문에 해당한다.

* 논증문 중에서도 논설문의 한 갈래이다.

2. 다른 종류의 글이 갖는 특성

① 정보 전달의 글

* 정보 전달의 글은 독자에게 어떤 사실이나 지식,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글로,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설명문, 보고문, 전기문, 기사문, 기행문

* 정보 전달의 글은 정보가 쉽고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 사전적, 지시적 언어

* 필자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되고 문장이 명확

* 객관적이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다.

㉠ 설명문은 정보 전달의 글을 대표하는 것으로, 쉽고 간결하게 쓰여져 보다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설명문을 읽을 때는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말하는가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 보고문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실험, 조사, 관찰 또는 연구한 결과 등을 정리하여 알리는 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 보고문을 읽을 때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명문과 같으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읽어야 한다.

㉢ 전기문은 실재했던 인물의 일생의 일부를 그 시대 또는 후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전기문은 그 인물의 남다른 경험이나 업적, 인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기문을 읽을 때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읽어야 한다.

㉔ 기사문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사화하기 위한 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사문은 읽을 때는 신문 기사의 제목, 소제목, 사진, 기사문의 요약문 등을 먼저 읽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읽어야 한다.

㉕ 기행문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시간 순서나 여정에 따라 기록한 글이다. 기행문을 읽을 때는 글에 나타난 그 지방의 특색을 이해하고 지은이의 개성적인 표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설득하는 글

* 설득하는 글이란, 독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펴서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독자들이 그 주장을 믿고 따르게 하는 글이다.- 논문, 논설문, 논증문, 연설문, 종교인들의 설교문, 담화문

* 설득하는 글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이라는 점이다.

* 설득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삼단 구성으로 전개된다.

* 설득하는 글은 독자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호소하는 글이다.

* 논증하는 글은 설득에 비해 이성애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㉖ 논문은 연구 결과로 얻어진 사실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논의한 글로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㉗ 논설문은 학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일반인을 위하여 쓰여진 글로, 신문 사설과 같은 논설문을 시사성을 띤다.

㉘ 논증문은 논설문 중에서도 특히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주장이 진리임을 밝히는 글이다.

㉙ 연설문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목적으로 씌어진 글로, 대중을 설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야 하며 청중의 관심 정도에 어울려야 한다.

③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글 속에 표현되는 것- 일기, 편지, 수필

* 허구로서 구성되는 글- 시나 소설, 희곡,

* 지은이의 정서, 태도, 심리 등의 표현이 중심. 개인의 내밀한 감정의 표현

㉚ 일기는 하루의 생활에서 자기가 겪은 일과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하루 단위로 기록한 글이다.

㉛ 편지는 상대방에게 전할 말을 적어 보내는 글로, 격식에 맞춰 쓰여진다.

㉜ 시나 소설은 일기, 편지, 감상문과 같이 작가의 정서가 표현된 글인데, 예술성이 반영되어 있다. 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타낸 것이고,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지만 진실을 추구한다.

시나 소설을 읽을 때는 작품 해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독자 자신의 입장이나 시각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글 읽는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 ㉔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문학종류이다.
- ㉕ 수필은 일상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붓 가는 대로 표현한 무형식의 문학으로 지은이의 개성과 인격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수필은 지은이의 경험이 그 토대가 되므로 지은이의 독특한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종류의 글의 특징을 이해하며 읽기

① 정보 전달의 글을 읽을 때에는

- 첫째,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둘째,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안다.
- 셋째,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맥의 내용을 추리하고,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며 읽는다.
- 넷째, 각 문단의 요지 및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 다섯째, 문단간의 위상 관계를 판별하며 읽고, 핵심 내용을 유추한다.
- 여섯째, 글의 짜임을 분석하고 구조를 도식화해서 글의 주제를 판별한다.

② 설득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 첫째, 글의 주제나 논점을 명확히 파악한다.
- 둘째, 사용된 논거가 적절하고 공정하고 명료한지 살펴본다.
- 셋째, 주장이 무엇이며, 논지의 전개가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 넷째, 내용이 정확하고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 다섯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의견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한다.
- 여섯째,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문맥을 잘 살펴서 생략된 내용, 문제점을 추론한다.
- 일곱째, 내용에 대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 여덟째, 필자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한다.
- 아홉째, 결론이 논거로부터 바르게 추론되었는지 살펴본다.

③ 친교와 정서 표현의 글을 읽을 때에는

- 첫째, 정보의 독해나 형식 분석보다는 이해와 감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 둘째, 글의 종류에 따라서 내용과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 셋째, 지은이의 생각과 감정의 섬세함 까지도 파악한다.
- 넷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지은이의 인식, 방법이나 관점 등에 유의한다.
- 다섯째, 작품 해석의 고정 관념을 버리고 독자 자신의 입장과 시각에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글 읽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 여섯째, 인물, 플롯, 시점, 어조, 운율, 심상과 상징, 반어, 풍자, 정서적 효과, 주제 등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유의한다.